

건축문화 RANG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8.10.107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사랑

광주·전남건축사회,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와 업무협약

지난 9월 13일 광주건축사회관에서... 세 기관 대표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 및 교환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20번째 미술 전시회 개최

오는 10월 12일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오픈식을 갖고 30일까지 전시

광주건축사회, 유치원·초등학생 대상 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개최

지난 9월 29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어린이 150여 명 참석

전남건축사회,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시

지난 9월 29일 전남대 공대 2호관 영명홀에서 입학식 가져, 12월까지 교육 진행

전남건축사회, 법제위원회 및 정책·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9월 17일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주요 현안 협의

Editorial

도시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전남도, 건축사와 건축행정담당자가 함께하는 건축관계자 워크숍 개최

오는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전북·경북·충북건축사회, 삼도봉 등반대회 개최

전북건축사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5일 진행, 3개 시도 회원 등 160여 명 참석

(사)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연합회, 제19회 전북건축문화제 개최

'건축! 전북을 짓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30일 ~ 11월 2일, 전북도청 일원에서

전북 전병갑 건축사, 2018 건축의 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사업 및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 수행 공로로

여수해양경찰서 신축공사 설계 공모

회원탐방 _ 해남지역건축사회 정용재 회장(태진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려

사랑에서 _ 마흔일곱 번째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하고 싶지 않은 걸까?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윗첨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Editorial

도시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광주다움의 도시회복을 위해 상업지역 고층 아파트 개선방안이 최근 발표되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상업지역에서 고층 주상복합건축물이 건축됨에 따라 도시문제가 발생하여 용도용적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용도용적제 개선안의 기대효과는 「상업지역의 본래 기능회복을 통한 상업 기능 활성화 및 도시공동화문제 해소, 상업지역의 고밀 주거 지역화 방지 가능,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 범위에 포함하여 상업지역의 순 상업시설 유치 가능, 용도용적제의 개선을 통해 초고층 아파트의 체계적인 높이 관리 가능, 상업지역 내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주거의 쾌적성 확보 및 상업지역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개선방안의 정책적 제언으로 「비주거용도 의무면적 산정 시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을 주거용도에 포함하고 주거용도에는 준주거 용적을 400%를 적용하여 초고층 아파트의 체계적 관리와 비주거용도 의무 확보면적을 현행 10%에서 30% 수준까지 올려」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광주는 전남·북의 거점도시이다. 이의 흡수력이 부족하여 도시화, 산업화 혁명 40년 동안 150만 명의 인구가 타 시·도로 빠져나갔다. 광주 각 지역의 용적률과 용도용적제의 기준은 타 광역시에 비해 가장 낮은 기준으로 강화되어 있다. 조례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된 범위에서 재·개정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낙후된 광주 도시발전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타 광역시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의 기업 활동을 강제·억제하려 한다. 이는 광주시의 청년실업 문제 해소, 고용 창출, 세수증대의 목표에 크게 역행하는 정책이 된다.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이 즐비한 서울 강남, 여의도, 부산 해운대, 인천 청라지구의 GDP는 7만 불에서 15만 불에 이른다. 광주 GDP의 3배~5배 수준이다. 모든 도시 정책은 시민이 순응해야 훌륭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복적인 도시정책으로 지금까지 침묵해 왔던 시민들은 먹고살 만한 도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떠났고 또 떠나게 될 것이다.

광주다움의 도시라는 정책들은 광주 도시 발전을 더디게 했고 GDP는 항상 꼴찌수준에 이르게 했다. 상업지역의 공동화를 가속화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용역보고서는 납득 할 수 없는 억지 논리이다. 서울은 상업지역의 고층업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순주거임대아파트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최근에 발표했다. 도시의 밀도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이 억제한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 경기의 일부 상업지역에서 적용한다고 해서 광주시가 이를 롤모델 삼아 초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시민의 재산을 억제·강제하는 것은 기본법 제23조 국민의 사유재산권 인정에 크게 반하는 것이 된다.

시장의 경영정책은 시민의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은 정복적인 정책은 이미 실패했음을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광주 도시의 발전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수요자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이창울 논설위원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청여당 淸與堂

신영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사람
 광주 남구 대남대로 267, 5층 Tel. 062-512-8046



대지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마을 46 / 대지면적 : 475㎡ / 건축면적 : 108.06㎡ / 연면적 : 169.39㎡ / 건폐율 : 22.75%
 용적률 : 51.24% / 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마감 : 치장벽돌쌓기, ZINK, 송판노출콘크리트

광주·전남건축사회,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업무협약

지난 9월 13일 광주건축사회관에서... 세 기관 대표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 및 교환



광주건축사회와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9월 13일 광주건축사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과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희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상호 교환을 했으며, 기념촬영 후 사업 내용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공동연구의 수행과 공동출판 및 홍보, 건축정책 및 기준개발, 각종 인증제도와 관련한 정책·기준·기술·사업정보 교류 및 업무지원, 관련 교육 및 공동세미나 개최 등에 대해 교류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비영리 학술연구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효율등급인증, 지능형 건축물인증, 공동주택결로방지성능평가, 에너지절약계획서평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20번째 미술 전시회 개최

오는 10월 12일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오픈식을 갖고 30일까지 전시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는 오는 10월 12일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20번째 미술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6시 오프닝을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시민들에게 미술작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특히 올하는 20번째 전시회를 열어 뜻깊은 의미의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건축사 미술동호회 정태호 회장은 “금번 전시회가 20번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선배 건축사님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밝히며 “시민들을 비롯한 건축인들의 많은 관람과 호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유치원·초등학생 대상 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개최

지난 9월 29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어린이 150여 명 참석



광주건축사회가 주관한 '제15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 사생대회'가 지난 9월 29일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됐다.

'꿈과 행복이 있는 건축물 그리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 광주지역 소재 유치원생들과 초등

학생 150여 명 및 학부모, 건축사, 대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현구 회장은 개최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광주시의 건축물과 도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 희망을 심어주며 나아가 아이들이 간직하고 있는 재능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밝혔다.

같지만 다른 캐드,
아키디자인

일반캐드, 리습, 3rd Party
그리고 건축전용기능까지

이 모든 것을 이 가격에?

1577-7618



쓰던 방식
그대로

기본 2D캐드 기능 지원

리습, 3rd Party 기능 기본탑재

작업효율
3배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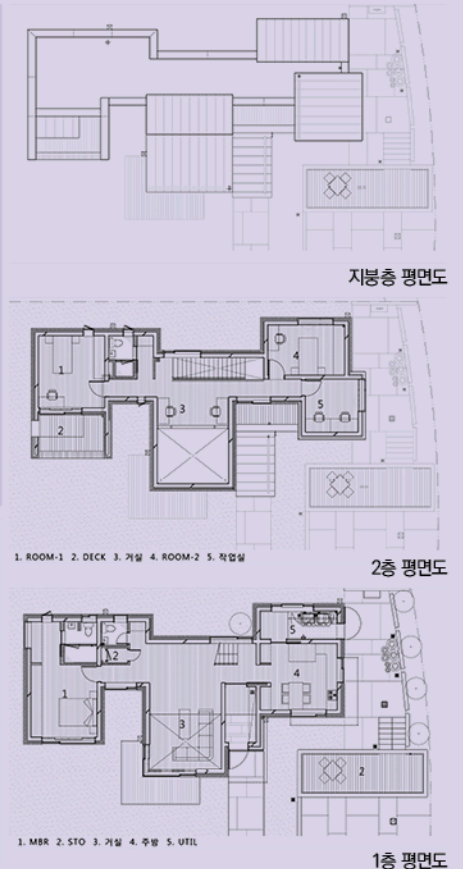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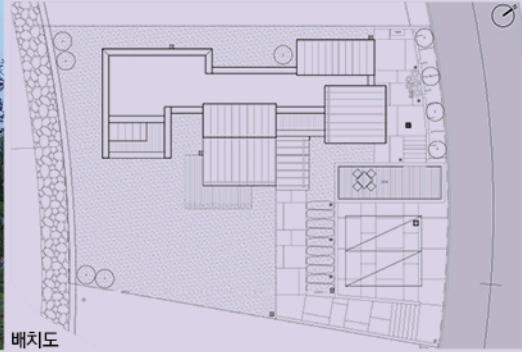
지겨운 라인편집 작업 → Direct Draw !

찾은 면적산정/도면수정 → Auto Revision !

단순반복 출력, PDF변환 → 1 Click !



“ 젊은 남편과 아내가 아파트 생활을 뒤로하고 푸름 속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집의 설계를 의뢰하였다. 도로보다 1.5m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약 150평의 대지는 도로에 북동 방향으로 접해있었다. 우리 지역의 옛 마을은 대개 도로를 등지지 않으며 방문자들을 흔쾌히 맞이하는 배치 방식을 띄고 있다. 청여당을 찾는 이들은 남동쪽의 현관을 통해 들어서면 푸른 자연이 반가이 맞이할 것이다. ”



제작년부터 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가 기존에 작품만을 접수받은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사생대회로 처음 진행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올해 대회 역시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아가고 어린 아이들에게 건축과 도시에 대한 꿈을 키워주기 위한 현장 사생대회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사생대회가 작년에 참가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참가신청자 수가 전년에 비해 150% 증가하는 등, 광주시를 대표하는 사생대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수상작은 10월 4일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에 공고되었으며,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주석중) 주최로 개최되는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전시된다.

광주 정광민 건축사, 2018 건축의 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건축문화발전 위한 공로 인정되어 지난 10월 5일 건축의 날 기념식에서



광주지역 정광민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서로)가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공로로 지난 10월 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8 건축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광민 건축사는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전통건축과 현상설계 경기에 관심을 갖고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했다.

특히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회장 역임(2013년~2014년)과 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2대 전국 시·도건축사회장 협의회 광주방문

지난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광주 및 담양 지역 건축물 답사 및 협의회의 진행



현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장 단 협의체인 제32대 전국 시도건축사회장 협의회가 지난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광주광역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담양 죽녹원 및 소재원을 답사하였으며 2018 광주비엔날레를 참관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협회 및 건축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광주건축사회, 경찰청 주최 행사에서 경찰청장 표창 수상한다

오는 10월 26일 호암아트홀에서... 범죄예방 도면작성 매뉴얼화 및 보급 공적으로

광주건축사회가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장 표창을 받게 됐다. 오는 10월 26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단체 부문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광주건축사회는 광주 서부경찰서 및 서구청과 2017년 8월,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건축사사무소에 건축물의 범죄예방 도면작성 및 설계 반영과 구청 인허가 시 건축주 준수사항에 방법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원룸 범죄예방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사업으로 건축주와 건물주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예방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CPTED 추진에서 벗어나 민간자본 유입으로 범죄예방시설을 설치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효과가 인정되어 서부경찰서는 2017년 10월 15일 경찰청 '취약구조 개선사업 시범모델' 전국 10개 경찰서에 선정되었으며, 2017년 12월에는 범죄예방 건축 매뉴얼 제작 및 제공(원룸)하고, 2018년 4월에는 금융기관 등에 범죄예방 건축 매뉴얼을 보급하며 확대하였다.

특히,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신축 원룸 100개소 중 90개에 범죄예방시설물 도면을 반영하도록 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광주건축사회는 2017년 경찰의 날에서 「경찰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범죄예방시설 매뉴얼을 건축사사무소에 보급 및 도면에 반영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국토교통부에 범죄예방 시설 반영 시 인센티브 제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 회원동성

• 입회

- 정인설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해 /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25번길 60-25, 1006호
- 이수진 건축사 / 미래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대로867번길 10-2, 1층

• 변경(소재지)

- 김명수 건축사 / 태영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백석길 8, 3층
- 선민규 건축사 / 금강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백석길 8, 3층
- 김명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연건축 / 광주 서구 백석길 8, 3층
- 양기봉 건축사 / 진명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대남대로 274, 2층

• 결혼

- 나현엽 건축사 / 그린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10월 20일(토)
- 임정구 건축사 /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정 / 장녀 결혼 - 10월 20일(토)

• 부고

- 김기일 건축사 / 다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9월 19일(수)

광양용강도서관

박종경 건축사 / (주)가야 건축사사무소
전남 광양시 중앙청용길 9, 2층 Tel. 061-793-3911



대지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용강리 865-6번지 / 대지면적 : 810.30㎡ / 건축면적 : 471.58㎡ / 연면적 : 1,309.26㎡
건폐율 : 58.20% / 용적률 : 161.58%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전남건축사회,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시

지난 9월 29일 전남대 공대 2호관 영명홀에서 입교식 가져, 12월까지 교육 진행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지난 9월 29일 전남대학교 공대2호관 영명홀에서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과정 참가 교육생들의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한옥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입교식에는 조연준 회장을 비롯한 전남한옥설계교육원 천득염 원장과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김태식 과장이 참석했으며, 교육을 신청한 광주·전남지역 40여 명의 건축사들이 자리했다.

올해 12월 말까지 3개월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교육은 한옥 이론과 설계, 시공, 전문가 특강, 현장학습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조연준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옥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 부족 등으로 한옥 설계 전문 인력 배출이 어렵고, 현재 활동 중인 건축사 회원들도 한옥설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대부분 부족한 실정이다”고 밝히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옥의 현대화와 한옥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그 중심에 건축사 교육생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8월 8일 전라남도과 전남건축사회,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은 협약을 맺고 상호 역할을 분담하며 적극 이행해 나갔다.

전남건축사회, 법제위원회 및 정책·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지난 9월 17일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주요 현안 협의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9월 17일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 및 정책·홍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연준 회장을 비롯한 법제위원 4인과 정책홍보위원 6인이 참석해 사무국장으로부터

더 도회 주요 현안과 법 개정 현황, 협회 소식 등을 보고 받고 협의를 진행했다.

한편, 전남건축사회는 조연준 회장 취임 후 원활한 도회 운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전남도, 건축사와 건축행정담당자가 함께하는 건축관계자 워크숍 개최

오는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전라남도가 2019년 주택·건축 정책 현안 공유와 전문가 특강을 통한 건축 관계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군 상호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여 건축 행정 발전을 실현하고자 건축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도는 오는 10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2018 전라남도 건축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 도, 시·군의 건축, 주택업무 담당자 90여 명과 도내 건축사 6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하여 국가 건축정책 추진 및 전라남도 건축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전라남도 건축자산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한 목포대학교 유창균 교수의 강연과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유익한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건축사회 관계자는 “건축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건축 전문가와 행정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일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면서 “워크숍을 통해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행사개요

- 기간 : 2018. 10. 25.(목) ~ 10. 26.(금) (1박 2일)
- 장소 : 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나주시)
- 참석대상 : 150여 명(도 20명, 시·군 70명, 건축사 60명)
 - 도, 시·군 : 건축, 주택업무 담당자
 - 건축사 :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원

○ 주요 내용

- <제1일 차> - 국가 건축정책 추진 방향(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자산관리 및 인생 설계(행복한 가정경제 만들기, 박성준)
 - 전라남도 건축자산의 개념 및 활용(목포대학교 유창균 교수)
- <제2일 차>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상영작 관람(대한건축사협회 추천)
 - 건축진흥 특별회계 운영사례 발표(장성군 건축담당)
 - 2019년 건축개발과 업무 계획 및 실무의견 수렴, 질의답변

전남 장성군, '건축 행정 건실화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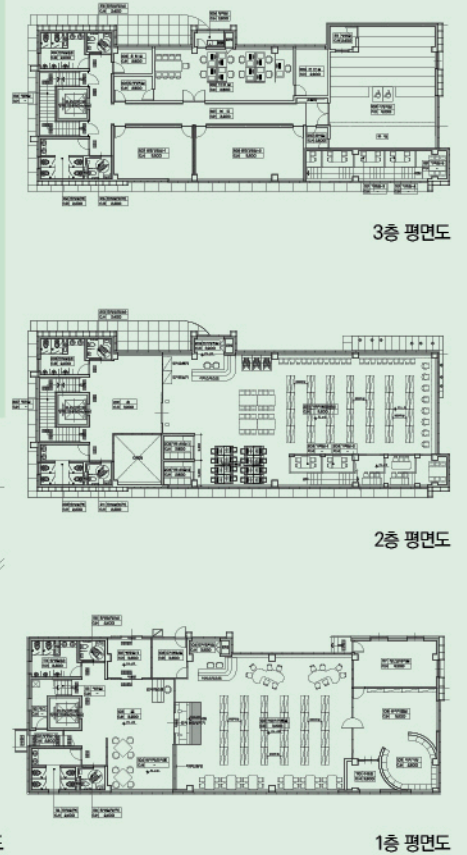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2018년 건축 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전남 유일

전남 장성군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건축 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 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지도·점검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과업 목적
「광양용강도서관 건립」을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을 위한 특성화된 문화공간 제공은 물론 시민의 이용편의도모 등 문화적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외부디자인 컨셉
일반적인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공부방) 책상 및 책꽂이를 형상화한 입면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



국토교통부는 건축 행정 절차 합리성과 시공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물 유지관리 적정성, 건축 행정 전문성, 건축 행정 개선 노력도, 위반건축물 관리 6개 분야에서 11개 지표를 설정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평가했다.

그 결과 장성군을 포함해 모두 20개 지자체가 건축 행정 건실화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남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힌 지자체는 장성군이 유일하다.

동신대 이상준 교수, 건축의 날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건축문화자원 활용 등 각종 연구 성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



동신대학교는 건축공학과 이상준 교수가 지난 10월 5일 한국건축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2018 건축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상준 교수는 지난 1995년 3월 동신대 교수로 임용된 뒤 24년여 동안 건축문화자원 활용, 보행환경 개선, 지역 재생, 특성화 연구 성과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건축학회 이사를 3차례 역임하고 올해 4월부터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 나주시, 음성권 전통한옥지구사업에 최대 2억 원 지원

한옥 건축 시, 보조금 1억 원, 융자 1억 원 지원... 시민 참여 독려



전남 나주시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음성권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옥 건축 시 최대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시는 원도심 내 역사문화자원이 밀집된 음성권 지역을 한옥지구로 지정, 천년고도 정체성 확립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옥건축을 장려해왔으나, 그간 실적 부진으로 전통한옥마을을 조성 계획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실적 부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한옥건축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높은 토지가격과 건축비로 결론지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보조금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9월 12일,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나주시 한옥지원조례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한옥건축 연면적 85㎡ 기준, 기존 6천5백만 원이었던 보조금

을 1억 원까지 변경·지원하며 1% 저리로 1억 원을 융자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옥 개보수나 외관 수선도 공사비의 기존 50%에서 70%까지 상향됐으며, 이를 통해 전국 지자체 중 한옥 건축과 관련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됐다.

아울러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의 사전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한을 2025년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보조금 지원과는 별도로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라 내년도 '건축자산 진흥구역지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한옥지구에 대한 미래 건축자산 조성 및 한옥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음성권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 관련 또는 보조금 지원 문의로는 나주시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061-339-7245)으로 하면 된다.

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 높아

지난 9월 27일 마감 잠정 집계 결과 6천847호로 99.2%

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지난 9월 27일 마감, 잠정 집계한 결과 6천847 농가가 접수해 전체 대상 농가(6천900호) 대비 99.2%의 접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었던 지난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연장신청인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한 농가에 대해선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관할 시군 적법화 T/F팀(또는 환경부서)에 제출토록 했다.

시군 적법화 T/F팀(환경축산건축부서 참여)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의 적정성을 9월 28일부터 2주간 검토 및 평가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의 '무허가 축사 유형별 적법화 이행 기간 부여 기준'을 원칙으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28일부터 최대 1년 범위에서 정하고, 이행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필요기간을 부여했다.

전남 회원동정

- **입회**
- 위소연 건축사 / 미강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남평읍 강변1길 65-13, 2층
- **재입회**
- 임대환 건축사 / 마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 전남 나주시 예향로 3814, 5층
- **변경(소재지)**
- 박종혁 건축사 / 바로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무등4길 28-12, 3층
- **결혼**
- 정종민 건축사 / 명인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09월 08일(토)
- **부고**
- 송성환 건축사 / 드림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9월 09일(월)

고센 숲 탐험대 & 호크마 두뇌개발원

한성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이든

전북 군산시 검다매안길 13, 201호
Tel. 070-8276-2762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277-5 / 대지면적 : 1,553㎡ / 건축면적 : 240.3㎡ / 연면적 : 349.82㎡ / 용도 : 제2종 근·생 및 단독주택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매트기초 / 주요 마감 : 0.5B 고벽돌 및 0.5B 백색벽돌 치장쌓기, 스타코플렉스, 합성목재사이딩패널



전북·경북·충북건축사회, 삼도봉 등반대회 개최

전북건축사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5일 진행, 3개 시도 회원 등 160여 명 참석



전북·경북·충북건축사회는 건축사회 간의 친목 도모와 우의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5일 민주지산 '제18회 삼도봉(전북 무주, 충북 영동, 경북 김천) 등반대회'를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길환) 주관으로 전북·충북·경북건축사회 회원 및 가족, 직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삼도봉 정상까지 등반은 하지 못하였지만, 민주지산 산자락에서 건축사 업계발전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갖고 각자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으며 3도 회원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전북건축사회에서는 오미자주와 기념품을 준비하여 참석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연합회, 제19회 전북건축문화제 개최

'건축! 전북을 짓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30일 ~ 11월 2일, 전북도청 일원에서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북도청 일대에서 열린다.

전북도와 (사)전라북도건축문화진흥연합회(회장 이길환)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건축! 전북을 짓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주요 행사에는 전시행사로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수상작 전시와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 한옥 기획 전시, 교육시설작품 전시, 건축사진작가 초대전, 전북개발공사 특별전이 진행되며, 학술세미나로 학술대회와 건축포럼이 열리고 차세대 건축 꿈나무 육성사업인 어린이 집 그리기 대회와 건축 백일장 대회, 건축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 도민참여 행사로 과자로 집 만들기 체험과 건축 및 진로상담실도 운영될 계획이다.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는 지난 1999년에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조례가 제정돼 2000년부터는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건축문화상 공모전 형태로 공모작에 대한 시상제도로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09년부터는 건축문화상 이외에 건축인 서화전, 출향건축사 작품전, 학술세미나, 한옥건축모형전,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2010년) 등으로 외형을 넓혀 행사를 진행해 왔고 2013년에는 어린이 집 그리기 대회, 건축올림픽, 건축모형 만들기 체험행사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진행해 오고 있다.

■ 단위 행사별 세부 일정

행사명	장소	10.20(토)	10.30(화)	10.31(수)	11.01(목)	11.02(금)
1. 개막행사 건축문화상 시상식 및 개막 테이프 커팅 ■ 사용승인 부문 ■ 학생 부문 ■ 건축사진 부문 ■ 어린이 집 그리기 ■ 건축백일장 ■ 건축올림픽	도청 4층 대회의실, 1층 로비		14:30 ~16:00			
2. 시공사례 발표	도청 3층 중회의실				13:30 ~14:30	
3. 학술 발표	도청 3층 중회의실				14:30 ~15:30	
4. 전북건축포럼	도청 3층 중회의실				15:30 ~16:30	
5. 어린이 집 그리기대회	도청 로비, 공연장	10:00 ~15:00				
6. 건축 백일장 대회	도청 로비, 공연장	10:00 ~15:00				
8. 건축올림픽	도청 4층 대회의실	13:00 ~18:00				
9. 건축 모형 만들기(과자)	도청 로비, 공연장		14:00 ~16:00			
10. 건축·진로 상담	도청 로비			← 10:00 ~ 17:00 →		
11. 전시 ■ 건축문화상 수상작(사용승인/학생) ■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 ■ 한옥기획전시 ■ 어린이 집 그리기 수상작 ■ 올림픽공원 수상작 ■ 전북개발공사 특별전 ■ 전북교육청 교육 시설 특별전 ■ 건축사진 작가 초대전 ■ 건축사진 응모작 ■ 건축문화제 특별교류전(서울)	도청 기획 전시실, 로비 등			← 10:00 ~ 17:00 →		

전북 전병갑 건축사, 2018 건축의 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사업 및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 수행 공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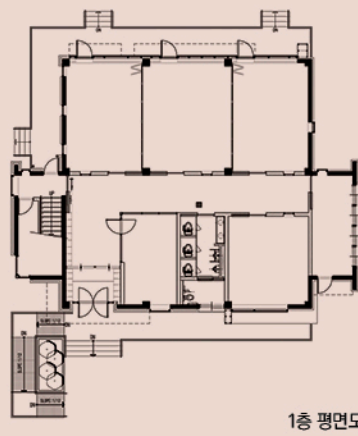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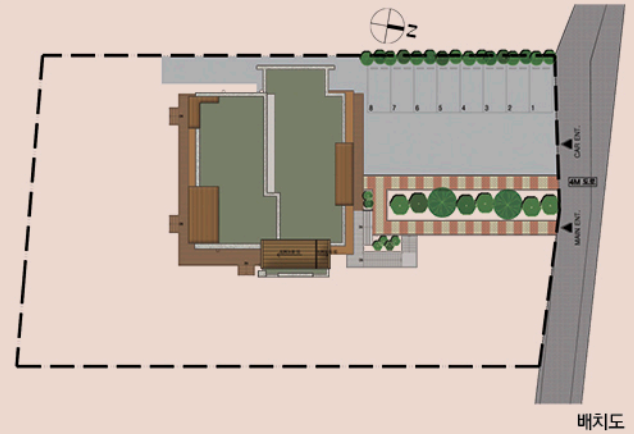
사진 우측 전병갑 건축사

전북건축사회 전임 회장인 전병갑 건축사(종합건축사사무소 제3건축)가 지난 10월 5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 건축의 날' 행사에서 정부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 등 각계인사와 건축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더불어 '행복한 건축'을 주제로 강연회 및 전시회가 열렸으며,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건축계 인사들에 대한 정부 표창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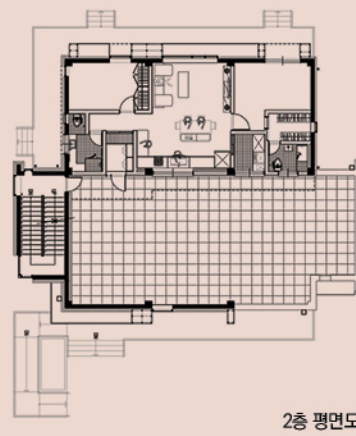
전병갑 건축사는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사로서 건축창작활동에 매진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로와 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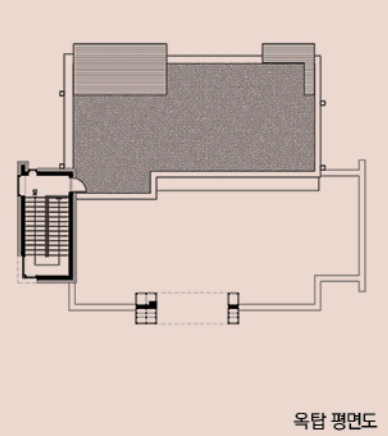
남쪽에 하천과 넓은 평야, 북쪽에 낮은 동산이 위치한 자연 친화적인 사이트에 사설어린이집을 계획하였다. 배치계획은 유아들에게 가능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내외부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외부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계획을 하였다. 동선로에는 안전확보를 위해 보차 구분을 하였고, 건축물로의 방향성을 주기 위해 내부진입로를 계획하였다. 입면파사드계획은 자연의 재료를 최대한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하였으며 자유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목재패널을 이용하여 비정형적 선형을 사용하였고, 1층 교육실 외관에 칼라유리를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다채로움을 살리려 노력하였다.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옥탑 평면도

북도 건축문화제 행사 주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역할 수행에도 충실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전북건축사회 축구동호회,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에서 우승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하남시에서 열린 14회 대회에서

전북건축사회 축구동호회가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하남시에서 열린 제14회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 지역 건축사 축구동호인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간 경기도 하남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개막식에서 하남시 장애인 단체와 축구 유망주 5명의 학생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있었으며, 특별히 전국 건축과 대학생 축구대회를 겸하여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준우승은 대구건축사회 축구동호회가 3위는 부산건축사회 축구동호회가 차지했다.

전북 순창군, 읍면 순회로 무허가 축산농가 양성화 지원 나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압박에 따라 축산농가의 편의 위해 순회

전북 순창군은 지난 9월경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압박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읍면 순회에 직접 나섰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서’에 의거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 중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다. 읍면 순회는 무허가 축사 대상 농가인 400여 농가 중 건축사를 대행하거나 이행계획서를 기 제출한 축산 농가를 제외한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 9월 14일 풍산면을 시작으로, 17일 팔덕면, 18일 쌍치면과 복흥면을 순회했으며, 20일 금과면을 끝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에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적법화 전담 TF에서 농가별 적법화 가능성을 14일 이내에 평가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이행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시, 도시재생 시민기자단 모집

올해 연말까지 연중 수시 모집, 군산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전북 군산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도시재생 시민기자단을 올해 연말까지 연중 수시 모집한다. 시민기자단은 군산시 중앙동 일원 등의 도시재생 사업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을 취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군산의 숨은 명소와 인물, 이야기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자원을 널리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

집인원은 총 10명으로 군산시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및 군산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 기간은 9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서류전형으로 1차로 선발해 교육 훈련 후 기사작성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선발하며, 시민기자로 선발되면 위촉장을 수여받고 채택된 기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는다. 신청은 군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군산시 신금길 18, 공설시장 3층 여성 교육장 내)에 방문하거나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통해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t2play@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 군산시, ‘2018년 군산시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실시

기존 간판 분야와 창작 간판 분야로 공모,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접수

전북 군산시는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형성하고 품격 높은 간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군산시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획일적이고 관행적인 광고물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간판과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적법하게 허가(신고)돼 설치된 간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접수받을 예정이다. 공모는 기존 간판 분야 및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필요한 창작 간판으로 나눠 진행되며, 광고주 및 간판을 제작한 광고업자, 간판 디자인 설계자, 대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기존 간판 분야는 참가자의 거주지 제한이 없고 군산 시내에 설치된 적법한 간판을 대상으로 하며, 창작 간판 분야는 전라북도 내에 등록된 옥외 광고사업자 등 전라북도내에 거주하는 대학교 재학생 및 일반인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에 대해서는 디자인의 독창성, 지역적 특성, 주변 환경 및 건물과의 조화, 친환경 소재 사용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7 작품을 선정해 각 분야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북 회원동정

- **전출**
- 박덕수 건축사 / (유)진성대상 건축사사무소 - 서울건축사회(양천)
- **결혼**
- 추원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 아들 결혼 - 09월 29일(토)
- **부고**
- 박종수 건축사 / 테마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9월 18일(화)
- 박충식 건축사 / 현민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9월 20일(목)
- 빙인섭 건축사 /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 빙모상 - 10월 02일(화)

여수해양경찰서 신축공사 설계 공모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청사 신축으로 남해 서부해안의 해양종합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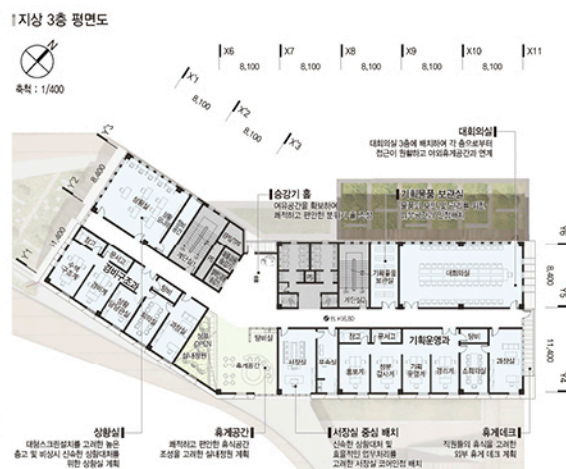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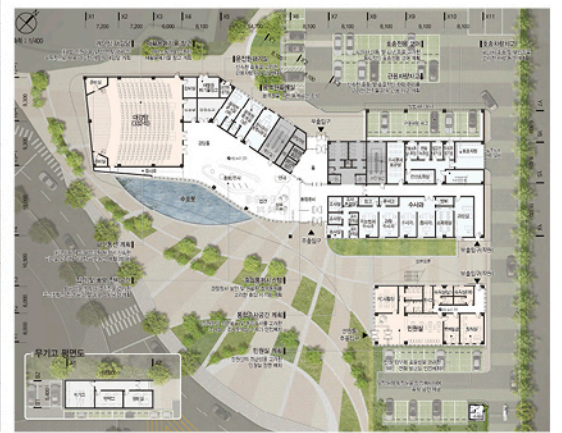
심사위원 : 안은희(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재우(부산대학교), 조극래(대구카톨릭대학교), 이지영(청주대학교), 노준석(원광대학교), 조형곤(여수해양경찰서), 소승영(전북대학교)

- 대지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111 일원
- 대지면적 : 8,361.0㎡
- 연 면 적 : 8,200.0㎡(±3% 이내)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 용 도 : 공공업무시설
- 공 사 비 : 15,080백만 원

당 선 작 : (주)길종합 건축사사무소이엔지
 기타입상작 : (주)신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기타입상작 : (주)위드 종합건축사사무소
 기타입상작 : 오현 건축사사무소
 * 자료 미제출

당선작

이길한 건축사 / (주)길종합 건축사사무소이엔지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헌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공식적인 회원 지원 기구로서의 역할을 모색하여 회원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 해남지역건축사회 정용재 회장과의 만남

전남 해남에서 10년간 활동하고 있는 태진 건축사사무소 정용재 건축사는 4~5년 전부터 지역건축사회 창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해남지역 내 회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규합해 나갔다. 그 노력 끝에 지난 2017년 해남지역건축사회를 창립시켰으며, 현재 해남지역 초대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10월 4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위치한 태진 건축사사무소에서 강동영 편집인과 설혜순 전남지역 편집위원이 정용재 회장을 만나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해남지역건축사회회장으로서 활동에 대해

해남지역건축사회가 창립된 지 2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4~5년간 창립 준비과정을 거치며,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함을 전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월례회의나 연말에 한두 번 정도 모이는 것으로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식적인 회원 지원 기구로서의 역할을 모색하여 회원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남 출신입니다. 해남중학교와 해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건축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시절에는 건축경기가 좋았고, 졸업 후 건축 분야의 취직에 대한 걱정도 안 했을 때입니다. 당시에는 교수님 추천서만 있으면 취직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니 동아리 활동하신 분들과 건축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졸업을 앞둔 4학년 때부터 그쪽 길에 관심이 있었기에 대학 생활을 보낸 전라북도 지역 건축사사무소에서 취업하고 경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건축사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2008년 전북 익산에서 사무소를 개소한 뒤 활동하다 2010년 이곳 해남으로 내려와 생활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건축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좋은 건축주를 만나 작품성 있는 개인 주택 정도는 설계를 해야 건축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해남 같은 작은 소도시에서 하는 일들이 작품성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곳에서는 근생(근린생활시설)을 많이 하고, 농어촌축산 시설물들은 보조하는 일들을 합니다. 작품성은 없지만 사람들이 사는 환경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명감으로 맡은바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익산에 정 건축사사무소 정진팔 건축사님이 계십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님 추천으로 그분 사무소에 입사하여 건축사가 되기 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정진팔 건축사님은 공무원으로 계셨다가 일찍 퇴직하시고 사무소를 개업하신 분이신데 특별하게 작품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건축주분들이나 일을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을 본인인 직접 상담하고,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좋아서 저도 나중에 건축사가 되면 반드시 저렇게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했습니다.

건축사 활동하시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면?

건축사라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건축주분들이나 그 주위 분들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저 또한 건축사로서 가장 자랑스럽다고 느낍니다. '자네 때문에 일을 잘 보았네, 마무리를 잘했네, 빨리 잘 되었네' 이런 말들이 저를 기분 좋게 해줍니다. 부끄러울 때는 군청하고 일을 하다 보면 협조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건축주분들이 저를 거치지 않고 군청에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요. 제가 모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럴 때는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다면?

작품 활동을 하면서는 생각나는 것은 없고 건축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했을 때 일을 하다 보면 날을 지새우고 달을 보다가 해 뜨는 것을 보며 퇴근하는 날들이 참 많았을 때가 있었고, 그런 이들이 비일비재하여 재미난 추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근로 기준이 정해진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추억들이 없어 아련해지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배들에게 잘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선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남에는 10여 명의 건축사들이 있고 그중 선배 건축사분들의 연세가 80세 이상이 두 분, 70세 이상이 두세 분 계십니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그분들이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그 직원분들 하고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선배 건축사님들에게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은퇴를 하고 젊은 후배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 또한 나이가 들면 뒤로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후배 건축사님들에게는 사실 이곳 해남의 작은 도시에 건축사사무소가 불과 3~4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나다 보니 좁은 바닥에서 직원 구하기가 어렵고, 젊은 친구들에게 일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배들과 소통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기타 사회활동에 대해?

이곳 해남에 내려왔을 때 건축사분들이 3~4분 정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군지역 내 여러 단체의 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남군의 건축과 관련된 분야의 심의위원을 하고 있고 법원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히 여기고 동참하고자 합니다.

취재 : 강동영 편집인, 설혜순 편집위원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s.com



전남 해남 / 태진 건축사사무소 정용재 건축사



지난 10월 4일 해남 태진 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



해남공공로타리클럽 봉사 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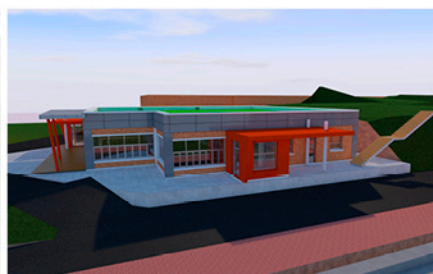


<정용재 건축사 작품>

해남미세조류산업연구센터 연구행정동



완도 청산초등학교 연립사택 증축공사



전남외국어고등학교 급식실



해남중고등학교 동창회관



화순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주석중)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가 후원하는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다.

매년 광주지역 3개 건축 단체(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가 상반기부터 각각 진행한 건축도시문화제사업 결과물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임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광주 건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석중 회장은 초청 인사말을 통해 "광주의 건축문화 융성을 위해 지역의 건축인과 시민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준비했다"고 밝히며 "문화제가 진행되는 4일간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광주의 색다른 건축문화를 듬뿍 느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화제 기념행사이자 광주지역 건축인들의 축제 마당인 '건축인의 밤' 행사는 개막식이 열리는 당일 오후 6시 광주 라마다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개최된다.

※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안내

10월 31일 (수)	개막식	오후 3시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10월 31일 (수) ~ 11월 03일 (토)	건축인의 밤	31일(수) 오후 6시 광주 라마다호텔 4층 대연회장
	전시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 전시회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원전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회원전 •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 2018 올해의 건축가 100인전 • 광주광역시 건축대전 수상작품전 •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입상작 전시회 • 광주전남건축디자인 워크샵 작품전 •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품전 • 장애 없는 세상 만들기 • 토요건축학교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	시민학생참여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 전시회 • 건축도시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 건축체험교실 • 건축도시 심포지엄 • 건축민원상담

문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T. 062)385-1636, E. archiunion@daum.net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공공부문 대상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민간부문 대상에는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이... 시상식 오는 11월 13일에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건축문화대상의 올해 대상 수상작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준공건축물 사회공공 부문)과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민간 부문)이 선정됐다. 세종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2-1생활권 M2·L2블록)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밝은 다세대주택이 각각 공동주거 부문, 일반주거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아모레퍼시픽 사옥, 밝은 다세대주택 설계자와 중흥S-클래스 센텀시티 시공자에게는 각각 대통령상이 주어진다.

국무총리상이 수여되는 본상에는 마포문화비축기지(사회공공)와 기장 웨이브 온(민간), 새뚝마을 7단지 투모로우시티(공동주거), 멋진할아버지집(일반주거) 등 4개 작품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평화문화진지, 흥릉 콘텐츠시연장, 한해 지혜의 숲,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DB생명 인재개발원 신관 등 15개 작품에 수여된다.

'통일-공유, 공존'을 주제로 한 계획건축물 부문에서는 '군산 조선소 부지의 자생적 공유 산업 클러스터 만들기'를 출품한 양우제·권순혁 씨가 대상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역 문화역서울 284 RTO관에서 진행된다.

광주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제30회 건축작품전 개최

지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교내 호심관에서... 학생작품 60여 점 전시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담당 교수 윤대환)은 지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교내 호심관 1층 전시홀에서 제30회 건축작품전을 개최했다. 이번 건축 작품전에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졸업 예정 학생 작품 24점과 학년별 작품 등 총 60여 점이 전시됐다. 출품작들은 아이디어가 돋보일 뿐 아니라 시각적 아름다움과 실용성 등 다양한 요인을 충족했다는 평가다.

개막식에는 광주대 김혁중 총장을 비롯한 학장과 처장단,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석중 회장,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해 작품을 둘러봤다. 김혁중 총장은 "이번 작품전은 전 학년에서 참여해 더욱 의미가 깊다"면서 "건축 작품전을 통해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춘 훌륭한 건축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광주대 건축학전공은 최근 LINC+ 사업에 '3D 프린팅을 활용한 도시재생 건축가양성 트랙'의 사회맞춤형학과로 참여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조선대 건축학부 김인호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받아

지난 10월 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18 건축의날 기념식에서...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김인호 교수가 지난 10월 5일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2018 건축의날 기념식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을 받았다. 김인호 교수는 프랑스 건축사 자격자로 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국가와 공공기관 건축 정책 평가, 심의 등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았다.

한편 건축의날은 지난 2005년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인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광주건축사회 주관, 서천·익산·완주 건축문화투어 참가자 모집

오는 11월 10일 진행, 11월 2일까지 선착순 80명 참가 신청 접수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11월 10일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일환으로 광주건축문화투어 서천·익산·완주 답사를 진행한다. 이번 투어는 2017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작을 수상한 익산의 전라북도과학교육원과 완주의 삼례문화예술촌, 자연과 곡면을 활용한 건축물인 서천의 국립생태원을 답사하게 된다.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은 건축사 및 소속사무소 직원, 교수 및 학생, 공무원 및 일반 시민 등 선착순 80명이며,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1월 2일까지 광주건축사회로 전화(062-521-0025~6) 또는 메일(gjkira@empas.com) 접수 후 참가비를 입금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法家 公證인가 법가

公證업무, 송무업무, 등기업무, 신청업무

대표번호사
박 철 / 朴 哲

- 변리사
- 대한변협 이사, 청년특위 위원장
- 광주변호사회 총무이사
- 법정문화발전협의회 위원
- 광주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7(지산동)
 T . 062-233-8070
 F . 062-223-5376
 M . 010-6678-1551
 E . pcgranfa@hanmail.net
 www.법가.com

사랑에서 _ 마흔일곱 번째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하고 싶지 않은 걸까?

얼마 전, 건축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들과 모처럼 술자리를 가졌다. 건축사, 규모 있는 건설사의 임원, 아파트 건설 현장 소장, 소규모 건설업자 등 분야는 조금씩 달랐지만 건축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모임이었다. 그중에는 처음 본 얼굴도 있어서 명함도 주고받으며 세상 사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대부분 그렇듯이 안부와 근황도 묻고, 직장과 일에 대한 고충과 스트레스를 쏟아내고, 서로에 대한 격려와 위안 그리고 부러움을 건네기도 하면서 조금씩 술기운에 젖어 들었다. 그러다가 남자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정치 이야기가 나왔고, 마치 본인들이 해법을 알고 있는 듯이 세상 모든 일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 국회의원들의 대정부질문과 쏟아져 나온 질 등이 안주거리처럼 오르내렸다. 그리고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문제가 화제로 등장하자 분위기가 절정을 이뤘고, 각자의 주장들을 토해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두가 건축인들이었기에 아파트 문제가 남 일 같지 않았으리라.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어섰는데도 집값이 치솟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에서부터, '삶의 질보다는 재산적 가치에 집착하는 국민의식'을 꼬집는 문제의식을 거쳐, '안 하는지? 못 하는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 알 수 없다'는 정책비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해법도 다양했다.

부동산 공개념의 적극적인 도입, 1가구 1주택 의무화, 다주택자 중과세, 공직자의 투기행위 엄벌,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건설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제기됐다. 하지만, 열띤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오랫동안 여의도를 들랑거리며 정치인의 꿈을 키웠던 분이 합석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만약 당신이 집권층 혹은 기득권층이라면,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라는 우문에 현답을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에 대한 갑론을박은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답은 찾지 못했다.

결국 비판론과 자성론이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개발정보를 알 수 있는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왜 부동산투기도 못 했냐?'는 말을 많이 들어, '1가구 1주택은 서민이고, 무주택자는 빈민'이래, '아는 것이 힘인지 모르는 게 약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더니 우리가 그 꼴인가 봐 등등. 미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몇몇은 몸과 마음을 술로 흥뻑 적셨고, 집을 향한 그들의 처진 어깨가 마치 내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그 후에 신문 보도를 보니,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1급 이상 국가공무원 및 그 관할 기관 부서장 등 고위공직자 중 47%가 다주택자이고, 국회의원 중 119명이 다주택자라고 하며, 2016년 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총 2만 3,991명이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기사는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 중 하나가 '건물주'라는 것이었다. 정말 씁쓸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건축물이 중요한 재화인 것은 분명하지만, 본질적인 가치를 제쳐두고 오직 투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해법은 뭘까?

자문위원_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 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건축설계 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일상생활을 반영한 설계 공모를 우선 적용함이 원칙이나, 현행 규정으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2.1억 원 이상인 건축물만 설계 공모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어 2.1억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가격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바 모든 공공건축물 설계 시 가격입찰의 전면배제가 필요하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기관의 노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계 공모 우선 적용 대상을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처리결과 통보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설계 공모 우선 적용 대상 확대(안 제17조 제1항 제1호)
 - 공공기관이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설계비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낮추어 적용 대상 확대
- 나. 사전검토 결과 처리 방향 통지 의무화(안 제20조 제3항)
 -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의 처리 방향을 공공건축 지원센터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

건축사 미술작품 _ 이경탁 건축사 作 / 프라임 건축사사무소(광주)



백두산 천지 2018 / Oil on Canvas / 53.0x45.5cm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 초대편집인: 박홍근
- 편집인: 강동영
-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 전담기자: 곽승국
-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 편집위원: 정관성, 김미영,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박종혁, 설혜순, 정영범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 간별: 월간
- 등록일자: 2010-01-25
-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 (주)씨엠엑스 350,000원
- (주)마이디스플레이 3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책 소개 _ 배성훈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여행의 기술

알랭 드 보통 저 / 정영목 역 / 청미래 / 2011. 12. 10.

“여행할 장소에 대한 조언은 어디에나 널려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와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 책의 저자인 알랭 드 보통은 우리에게 유머러스하면서도 깊은 언어로 그가 떠나는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그는 여행에 대한 기대에서부터 이국적인 것에 대한 매혹, 황홀한 휴양지의 바다,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프로방스 그리고 공항의 비행기 이륙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 차분히 생각하게 한다. 이 책은 우리가 여행을 왜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알랭 드 보통은 우리에게 들려줄 여행지마다 여행 안내자들을 소개해준다. 보들레르, 호퍼, 플로베르, 훔볼트, 위즈워스, 러스킨, 메스트르 등의 훌륭한 안내자들의 글과 생각들은 알랭 드 보통의 해학적이고 철학적인 생각과 겹쳐져 우리와 마주한다. 이들은 기대, 이국적인 것, 호기심, 송고함, 눈을 열어주는 미술, 아름다움의 소유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우리는 손에 이 책을 들고 있는 동안 눈으로 글자를 읽는 시간보다 그들의 생각과 마주하여 여행의 가치에 대해 곰곰이 사색하는 시간에 더욱 빠질 것이다.

“승객 가운데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면 우리가 구름 위를 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필요한 만큼 힘을 주어가며 말하지 않는다. 다빈치나 푸생, 클로드나 컨스터블이라면 가만히 있지 못했을 텐데.” 알랭 드 보통이 옛 현자들을 데려와 우리에게 시선의 상대적인 차이를 일깨워 줄 때면 우리는 잠시나마 주변의 문명을 돌아보고 그 놀라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렇게 여행의 일반적인 순간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나쳤을 법한 가치를 찾아내는 알랭 드 보통의 문장은 책을 읽는 내내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킨다.

알랭 드 보통은 “여행의 위험은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즉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물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여행의 숨은 가치들을 지나치지 않고 여행지의 감동과 사물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길 원한다면 그에 맞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비행기 표를 예약하기 전에 ‘여행의 기술’을 읽어 보기를 바란다.

한 편의 시 _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사 유틐

어느 늬미 내질러 눈 똥이라도
한 구덩이 있는 건지
썩은 생선 내장 한 토막이라도
내 팽겨져 있는 건지
왜 뽕뽕거리는 소리가 사납다

쉬파리인지 똥파리인지
분간도 안되는 무리들이
무슨 세일이라도 하는지
고약한 냄새가
비위도 상하지 않는지
어지간히 법석도 떨어가며
왜 뽕뽕거린다

행여
어떤 늬미
오래 사는 약이라도 파는건지
궁금해서
구다보지만
구린내만 나고
구역질만 나는 것이

똥들 속고 있었다

세상사는 느낌 _ 박유현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대학 졸업을 앞둔 5학년의 고민

20살 되던 해 나는 건축학과에서 무얼 배우는지조차 모르고 학교에 왔다.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군대에 갔고 23살이라는 나이로 다시 학교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다. 2년이라는 세월을 군대에서 보냈기에 돌아와서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교수님들께서 알려주시는 건축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열심히 이해하려 하는 사이 어느덧 대학교 5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그 과정 속에서 공모전도 나가고 자기 계발의 차원에서 많은 프로그램의 숙련도를 쌓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당연하기에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고민이 많이 된다. 나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 차별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사회라는 걸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온 것 같은데 부족하기만 한 결과물을 보며, 좀 더 열심히 할걸, 좀 더 노력할 걸 뒤늦은 후회만 남는다. 학생이기에 부족할 수는 있지만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이 많이 된다.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좋은 건축사님들 밑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며 일하고 싶은데 그런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까? 걱정이 앞선다.

예전에 설계사무소는 비교적 취업이 잘되는 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워낙 경기가 좋지 못해 취업이 힘든 것 같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통 모르는 것투성이라 걱정만 쌓여가는 요즘이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내가 이 설계 직종이 좋기에 곳곳이 참고 버텨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고민이 비단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2개월 우리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덧붙여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다양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 많은 경험을 쌓아 볼 계획이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곳이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 취업 전 마지막 휴식을 가질 계획이다.

당신의 공사감리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감리자 필수앱!! 터치 완성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사진대지 스마트감리앱



PC로그인 www.archim.kr 콜센터 02 3462 1336
[문의] 이기상 건축사 (010) 8276 6158

